

## 라이트 주택의 자연상징과 리얼리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lity and Natural Symbols in the Wright's Houses

조 승 구\*  
Jo, Seungkoo

#### Abstract

In the resultant period of architectural transition and a tendency towards unthinking formalism, it is all the more important for designers to question the meaning of their actions and their role in society. Modern architects were convinced that their visions were reality, their ideas truth. Yet this assumption is was the fundamental issue, for what reality and how is it perceived? Harries argues a rediscovery of a language of natural symbols, which might help create buildings that are experienced as necessary rather than arbitrary. These symbols are said to express the essential patterns of human existence in the world. In the Frank Lloyd Wright's works, the uniqueness of his architecture lies in its expression and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people's existence in the world. This study is intended to be an investigation of the nature of physical expression and perception of the reality known, and to seek to present Wright's philosophy of house design in relation to nature and non-arbitrary architecture.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expressions of Wright's houses are timeless and full of life, and these built qualities are necessary and could not readily be otherwise.

Keywords : (non)arbitrary, natural symbol, relationship, quality, reality

주요어 : (비)자율성, 자연상징, 관계, 질, 리얼리티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리스(Harries)는 주장하길 회화나 조각과 달리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자율적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건축이 단지 미의 요구만을 충족할 수 없다고 했다<sup>1)</sup>. 자율적이고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에게 지정된 위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술과 달리 건축이 전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 내에서 우리 자신의 상황과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건축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의존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비자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자율성의 건축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이론에 의해서 유기적 건물은 기능을 따라야 하며 전체성에 대한 조화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많은 이론가와 비평가들은 라이트가 적용한 자연을 유기적인 것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해하여 요소와 요소들의 관계로 한

정하였다. 이는 라이트의 건축에 대한 규범적 해석과 이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의 확대 재생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기적 건축의 해석으로 대조, 대비, 조화, 수평적인 선, 수직적인 선, 자연으로 대표되는 라이트의 건축에 대한 상투적인 해석 방법은 라이트의 건축을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트의 건축이 주는 촉각적이고 시적인 공간적 질을 인식할 기회를 앗아갈 선입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라이트의 건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건축적 분석과 읽음이 필요하며, 다양한 건축적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 방법으로 건축과 자연의 관계를 통해 리얼리티가 어떻게 라이트의 주거건축에 반영되었는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그 외의 사항은 논외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건축에 나타난 리얼리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라이트의 주거건축이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차별적으로 주거공간의 질을 향상시켰고 풍요롭게 했는지를 재조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동명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정회원(주저자),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박사

1) K. Harries(1983), Thoughts of a Non-Arbitrary Architecture, in Perspecta, vol.20, p.11.

2. 연구의 방법

삶의 실재로서 리얼리티는 고정된 하나의 정체로서가 아니라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트의 주택을 분석함에 있어 리얼리티의 상징적인 형태 특성과 자연과 연관된 라이트의 주거만을 다루고자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실상 라이트의 주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총체적인 이해에 앞선 전단계로서 분석하고 서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유기적 건축으로 라이트의 주택이 요소와 요소들이 상호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요소와 요소들의 배치는 배치된 순간부터 상호작용을 하고 반영된 리얼리티는 공간 속에 펼쳐진 대상들의 집합으로 외부의 절대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단히 생성되고 변전하는 상태에 있으며 인간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여기서 변화와 생성의 대상은 리얼리티가 유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본고에서는 리얼리티와 자연이라는 용어로서 라이트의 주택에 대한 분석의 도구로 삼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먼저 리얼리티는 어떻게 정의되고 분류되는지를 서술하고 리얼리티가 어떻게 건축으로 반영되었는지를 대표적인 사례의 건축을 통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리얼리티의 분석적 틀과 정의는 라이트 주택의 분석의 참조로 활용하며, 이를 토대로 라이트는 주택에서 자연상징을 통하여 어떤 개념과 정의로 인간, 자연, 건물이 통합하였으며 주택에 구체적인 자연 상징의 의미로 구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제시한다. 여기서 자연상징 이외의 요소를 통하여 리얼리티가 주택에 반영된 것은 사회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다른 맥락에서의 논의가 필요한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도표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분석의 예를 보여주고 상징 요소들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것이다. 따라서 리얼리티와 자연의 상징이 라이트의 건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를 보여줌으로서 라이트 건축의 자연 상징이 비자율적인 개념에 의해서 재현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택에 대한 분석은 외관과 내부공간에 대하여 도면과 사진, 문헌을 통한 2차적인 자료에 의존하였다.

II. 리얼리티의 특성

리얼리티(reality)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실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정의된다. 이는 사실성, 구체성,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리얼리티는, 현실적이며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다. 리얼리티는 신념뿐만 아니라, 객체들(objects)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건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관습화와 상징

리얼리티의 사회적 정의는 어떤 빈번한 행위에 개인의 체계적인 반응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거나 발전되어짐으로써 나타났다. 행위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생산될 수 있고, 독특한 발생보다는 패턴이나 습관으로 본질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되는 행위에 대한 결정을 최소화하며, 개인에게는 다른 상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심리적 이점을 주었다<sup>2)</sup>. 비슷한 방법으로, 외관상 무질서한 복잡한 환경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개인의 인식적인 능력은 주변 환경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sup>3)</sup>. 인간은 일련의 체계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개인의 것으로 습득하고 체험한다. 첫째, 절대적 판단과 결정보다는 상대적인 것이 이루어지며, 둘째, 단순한 과정들은 덜 의식적이며, 일상적인 것들은 알려진 환경들이 보다 적은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발전시키며, 셋째, 상세한 내용은 비교적 큰 단위체계안에서 기록되며, 작고 미세한 것들은 덩어리로 구분되어, 상징 속으로 재현되거나 표현된다<sup>4)</sup>. 따라서 인간은 모든 사물을 상징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들은 환경적인 자극 또는 대응인 것처럼 사물들에 대응한다<sup>5)</sup>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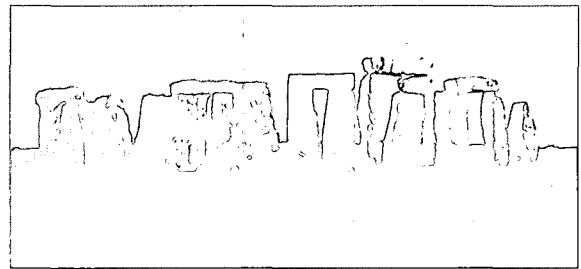


그림 1. 스토운헨지(실존적 공간의 상징)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압축당하면서 하나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물질이 생산되었듯이, 외형상 응축되어 간단히 보이지만 대단히 그 내포가 복잡한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상징화된 어떤 항목이나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고 다른 항목이나 사물과의 관계로부터 의미가 생성될 수 있다. 어떤 사물이나 항목이든, 그것을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개개의 항목이 지니는 특유한 성질이 아니라, 그 성질과 다른 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의 차이이다. 실제로 이 차이는 얼마간의 대립으로 체계화되어 서로가 실체 내에서 엄밀

2) P. L. Berger et.al.(197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Doubleday, p.53.  
 3) A. Rapport(1977), Human Aspects of Urban Form, Oxford, Pergamon Press, p.114.  
 4) Ibid, op. cit., p.198.  
 5) R. Dubos(1965), Man Adapt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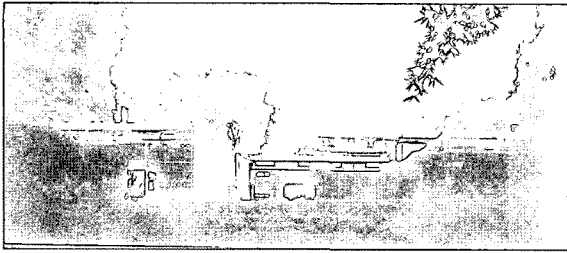


그림 2. 언들러, 체이스 주택, 1921  
(주거의 원형적 개념을 추상적으로 상징)

한 관계로 맺어지며, 인간은 상징화된 요소들을 이해하고 읽는다. 그러므로 상징은 물리적인 형태에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연관하여 반영적이고 관계적 사고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그림 2>.

## 2. 객관적 실재와 이미지

제도(institution)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모여 습관화 또는 관례화된 정의를 상호 받아들일 때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호혜적 관계의 패턴은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미리 정의되고 행위의 패턴에 상호 동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행위를 조절한다<sup>6)</sup>. 제도가 본래 만든 창조자를 초월하여 존재할 때, 객관성에 대한 특징을 확보하며,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역사적 보존을 가능케 한다<sup>7)</sup>. 제도들은 그 자체에 대한 리얼리티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의 수명을 초월하여 지속될 것 같은 현상으로서 개인들에게 도전한다. 그러나 명백한 객관성에도 불구하고 제도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조건이다.

객관적 실재의 발달에서 인공 축조물들은 주요역할을 한다. 건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며, 무디고 비가시적인 것이 아닌 가시적인 것이다<그림 3>. 또한 건축은 물리적이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축물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사회적으로 발달된 범주와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관습화된 분류는 축조물을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 있는 분류로 질서를 세운다. 이런 이미지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있고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이상과 지식의 사고를 통합하는 주관적인 지식이다<sup>8)</sup>. 이미지란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이다. 그것은 최초로 나타나서 받아들여진 장소와 시간으로부터 잠시 또는 수세기나 떨어진 외관이다<그림 4>.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내용과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는 객관적 실재의 외양을 가지고 있는 범주로 정의하며, 이런 정의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개인들에 의해서 상호 공유될 때, 이미지들은 교외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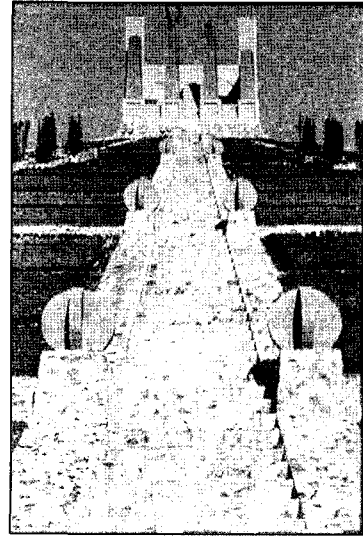


그림 3. 리카르도 보필, 기념비, 1974  
(입구와 건물 주변의 재료를 반영한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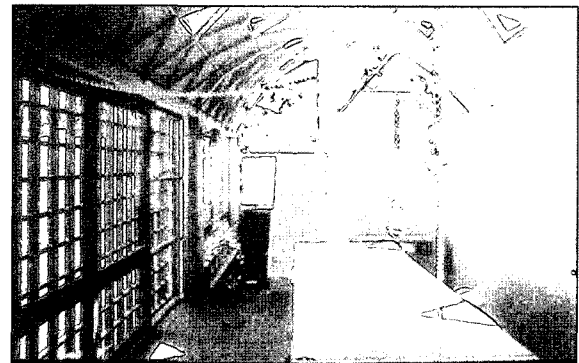


그림 4. 토요미토, 실버 헛, 1984  
(일본 민가의 창호이미지를 상징)

미지, 좋은 주거환경 이미지등과 같이 명명되거나 서술될 수 있는 제도화된 상징적 구축으로 된다. 주거 밀도 같은 개념들은 면적당 인구수 같이 구체적 정의의 절대적 용어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이상적인 생활 이미지와 주민간 최소의 교류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부적임의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이미지는 사용된다.

## 3. 합법성(Legitimation)

어떤 전형 또는 제도를 만들 때, 처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들 배후에 있는 이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전달된 지식의 체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리얼리티에서 합법화는 만들어진 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작용한다<sup>9)</sup>. 상징적 체계는 이런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관계의 적절하고 부적절한 방식을 의미하는 분류와 기능들을 명명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제공하고 의미를 계

6) Berger et. al., op. cit., p.53.

7) Ibid, op. cit., p.58.

8) A. Rapport(1970), Symbolism and Environmental Desig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vol.1, no.3, p.4.

9) Berger et.al., op. cit., p.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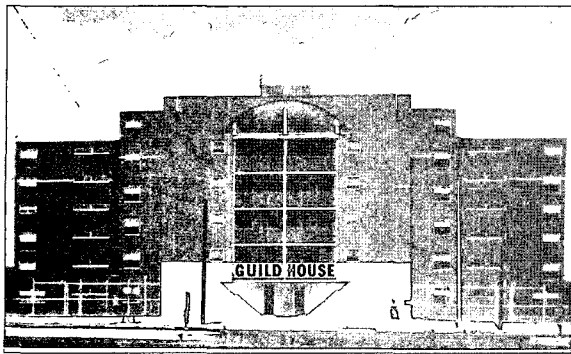


그림 5. 로버트 벤츄리, 길드하우스, 1961  
(노인주거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TV안테나로 상징)

속해서 지속하기 때문이다<sup>10)</sup>. 예를 들어 언어는 사회적 인식을 변형하고 영속시킨다. 어휘, 문법구조, 음조의 질 모두가 사회의 성격과 특질(textures)을 구현한다. 이런 형식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은 인식과 대화 내용에 영향을 준다.

공간은 단순한 코드인 것처럼 단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의 모인 사람들이 특권과 불이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공유된 의미를 객관화하는 것이 공간이다<그림 5>. 증명할 수 없고 회의적인 믿음들이 리얼리티로서 사람들에게 직면한 실체에 객관화되는 것이 공간이다<그림 6><sup>11)</sup>.

사회의 제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서, 건축은 아주 우세한 시각적 역할을 한다. 합법화의 예는 경계, 문, 주요한 가로, 우세한 랜드마크, 축조물의 높이, 대칭,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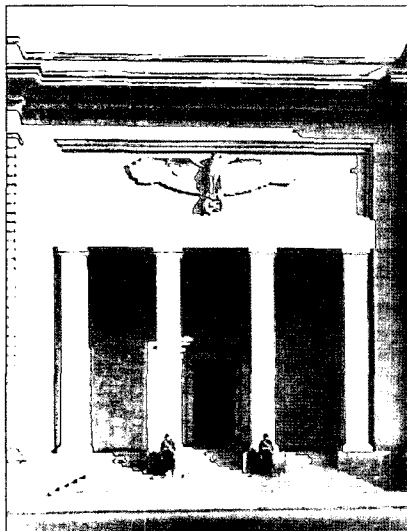


그림 6. 알버트 스피어, 제국사무국, 1939  
(독일 나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기위한 기념비적 건물)

질서의 배열 등에 의해서 표현되고 강화되었다<sup>12)</sup>. 모든 축조된 형태는 관념적 측면과 영향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 교회, 사당, 왕궁, 관공서 건물등과 같은 의식을 하는 기념비 건물은 완전히 관념에 의존하는 상징들이다. 귀중한 재료의 사용, 건물의 현저히 눈에 띄는 위치나 크기, 은유적인 착시를 통해서 이러한 상징 건축물들은 그 사회의 성스러운 제도와 믿음의 사회적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

#### 4. 미학과 은유(metaphor)

건축의 지각적이고 영적이며 매우 심오한 심리적 측면은 심연의 미적인 경험을 가능케 했다. 건축은 생생한 시간과 공간의 경험을 창출하면서 장소와 경험의 사건들이 상호 보완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전체의 지각적인 반응을 포함한다. 고딕 성당에서 미래의 구원과 고통스러운 현재를 인내하면서 갈구하는 사람들의 소란함은 여과된 햇빛, 스테인드글라스, 향, 반향하는 음악, 리듬이 있는 성가, 공간을 고무하는 경외와 같은 성당의 효과를 통해서 전환되었다<sup>13)</sup>. 이러한 장소에서 단지 실용적이고 물리적으로 적절하며 기능적인 설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적인 요소를 강조하여 보여준다<그림 7>.

언어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 상징으로 언어를 나타내는 것이 은유이다. 즉, 은유는 언어적 상징이다. 언어학에서 은유는 형식적 분류체계에서 상호 대체 가능한 것들의 관계이며, 직접적으로는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성에 의하여 교환되어 의미전달의 사고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문맥 체계 내에서 하나의 상징에서 다른 상징으로 태도나 감정적 반응이 전이되어 작용할 때 은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건축적 도구의 미적인 효과와 상징의 요소를 결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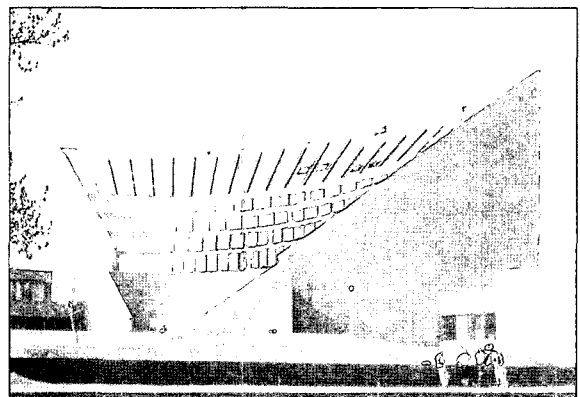


그림 7. 알바 알토, 헬싱키 공대, 1949  
(자연환경을 위해 빛과 유리 사용하여 형태로서 은유)

10) H. Duncan(1968), Symbols in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22.

11) M. Edelman(1978), Space and Social Order, i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no.514-78, p.1.

12) K. Lynch(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Cambridge: MIT Press, p.79.

13) G. Mead(1925), The Nature of Aesthetic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vol.36, p.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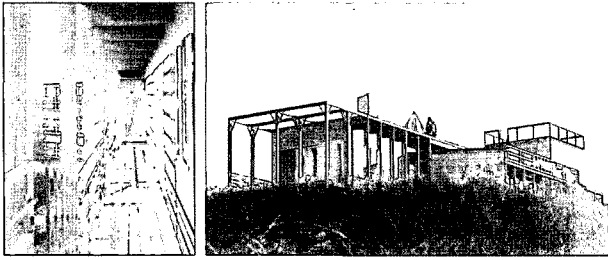


그림 8. 스티븐 홀, 베르코비츠 주택, 1984  
(형태, 공간, 시공의 의미를 고래뼈로 은유)

것은 물체와 감정적 반응사이의 관계이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즐거움의 언어로 해석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건축과 같이 진정한 심미적 건축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그림 8><sup>14)</sup>.

### III. 라이트의 주택과 자연상징

#### 1. 비자율성의 건축과 자연

해리스는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인간 개인들이 자연과 커뮤니티의 삶 속에서 장소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질서로 세계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고 했다<sup>15)</sup>. 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문화적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다고 했다. 해리스는 비자율적인 건축은 어떤 질서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이런 질서는 인간 삶의 본질을 다루는 자연과 문화 두요소를 포함한다고 했다. 자율적인 것은 이런 자연과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비자율적인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질서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트는 해리스와 같이 인류 본질에 대한 표현과 해석으로서 건축을 보았다. 그는 어떤 구조의 본질적인 리얼리티를 찾고자 했으며, 이런 리얼리티를 자연법칙(natural law)으로 보았다. 이 자연법칙의 시작과 끝은 자연이라는 대상으로 보았으며, 그는 세계 속에서 리얼리티가 공존하는 주거를 구축하고자했다. 그는 주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거주는 자연의 섭리를 표현해야 되며, 이는 대지에 순응하고, 환경에 순응하며, 거주자의 삶을 통합해야한다. 재료의 본질을 통합하고 환경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는 주택은 내외부에 깊숙이 스며든다<sup>16)</sup>.

라이트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아무런 작위나 의식도 가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존재나 변화의 의식조차도 가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궁극적인 상태이다. 자연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존재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라이트의 자연해석은 유기

적인 생명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어의 ‘nature’가 아니라 ‘self-so’, ‘naturally-so’ 등으로 번역되는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 2. 지속성의 자연

건축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물질에 의해 관계를 가지며, 이 관계에 인간의 지각이나 경험이 관여하여 이해를 돕는다. 관계를 통해 지각하고 경험된 공간은 기억의 과정으로 공간의 의미를 추상화한다. 추상화된 의미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안에는 머문다는 집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거주에 관점에서 공간에 머문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되는 것으로 건축과 인간이 오랜 시간 지속적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거주에는 일상성의 개념과 습관이 내재되어 우리를 친숙하게 한다.

근대건축은 기계 문명의 합리성과 속도감에 의하여 평균적 인간을 위한 객관적 건축을 추구하여 주관적 의미로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르 꼬르뷔제는 인간의 신체기관은 모두 같고 기능 또한 같으므로 인간의 요구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생물학적 개체로서 단순한 인간, 바로 획일적 인간관과 개인과 단순 집합으로서 사회라는 추상적 사회모델을 동경하여 이상적인 환경을 구축하려고 했다. 르 꼬르뷔제에게 주거는 살기 위한 기계로 개념화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은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적절한 기능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의 해석과 표현,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통합적으로 고려했다. 라이트의 상징 언어는 그의 주택 작품에서 유기적 건축의 언어이며 인간의 고유성, 즉, 인간의 행위, 태도, 영감과 자연의 힘에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근대건축의 기술적,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기능주의와는 다른 본질적으로 시적인 것을 추구하였다<sup>17)</sup>. 활력의 원천인 자연에서 통합성을 추구하였으며, 그에게 자연이 제공하는 가능성은 무한하며, 그 다양성은 어떤 인간의 소망보다도 훌륭하다고 하였다. 라이트는 거주의 지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상징은 주거를 대지와와의 통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점에서 라이트의 주거는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지의 지형적 특징을 주택의 평면, 입면에 적용하였다.

이런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적절히 보여주고, 거주의 본질을 낙수장(Falling Water, 1936-39)에서 재현하였다 <그림 9>. 이 주택은 바위 위에 축조되었으며, 밑으로 폭포가 떨어지며 물이 흐른다. 돌로 만든 골뚝과 벽은 바위에 수직으로 세워졌으며, 하늘을 향해있다. 수평 방향

14) Mead, op. cit., p.387.

15) Harries, op. cit., p.16.

16) F. L. Wright(1954), The Natural House, New York, Macmillan, p.134.

17) F. L. Wright(1954), The Natural House, New York, Macmillan, pp.13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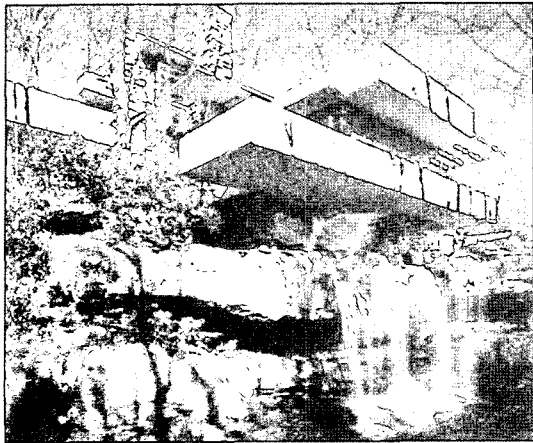


그림 9. 낙수장 (1936-39)

의 캔틸레버는 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자연의 특성에 순응하고 있으며, 십자형 평면은 3차원 방향으로 자유로이 확장되어 있다. 내부로부터 외부 자연 환경과의 상호 작용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행이 하나의 시와 같이 표현되었다. 수직성과 수평성의 건축적 표현을 통한 내외부 공간의 융합은 인간이 자연과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 준다.

이런 자연과의 순응을 베르그송(Bergson)은 지속성으로 설명하였다. 정신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인간의 지각은 기억으로 젖어있으며, 지각과 기억의 두 활동은 상호 침투하면서 그들의 본질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교환한다고 했다<sup>18)</sup>. 의식과 물질, 정신과 육체가 지각 속에서 접촉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으로 인하여 건축과 자연, 요소와 요소가 연결되어지며 과거는 현재 안에 내재하여 우리에게 이해된다. 그러므로 라이트는 건축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무반응하는 기능적 사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다.

3. 건축형태와 자연

라이트는 자연은 전형적인 건축 형태와 관계를 축적하고 다시 우리에게 제안한다고 확신했다. 즉, 자연은 비례 감각이 배양될 수 있는 실무적인 곳으로 보았다<sup>19)</sup>. 낙수장에서 거실에 있는 자연석은 주택의 직사각형 테라스와 굴뚝의 원형(original form)으로 존재한다. 이런 형태들은 자연적으로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파생되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자연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즉, 이것들은 대지에 임의적으로 부가된 것이 아니며, 형태들은 대지와 함께 성장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를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낸 비자율적인 것이다. 라이트에게 원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지에(Laugier)는 작고 단순한 오두막 모형은 건축의 본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이 소박한 자연

을 따른 형태라고 했다. 기둥, 평방, 박공과 같은 요소들은 건축의 진정한 원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일종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질적인 요소들로 구성할 경우 우리는 관습이나 인습에 관계없는 본질적인 미를 창출할 수 있다<sup>20)</sup>. 사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머무는 것은 소우주와 대우주간의 존재론적 띠로 묶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이트는 본질적인 미를 창출하고 의미가 가능한 곳을 자연으로 보았다. 그는 고전적이고 통합적인 인식의 틀에서 지배적인 양식이나 틀이 아닌 다양하고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윌리츠(Willitts, 1902) 주택<그림 10>에서 라이트는 팔라디언 형태인 십자형 평면을 해체하여 공간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라이트는 건강한 건축에서 건축을 만드는 프로세스 가운데 건축 자체 속에 자연과 개체로서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보아 건축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건축은 하나의 고리로 이루어졌다고 했다<sup>21)</sup>. 주택에 나타난 주거 볼륨은 서로 다른 볼륨을 하나의 십자형 볼륨으로 정리하여 존재한다. 가운데 굴뚝은 하나의 지시(reference)로 작용하고 서 있으며 굴뚝 중심으로 건물의 날개들은 밖으로 수평으로 뻗어나가며, 집은 마치 자연과 섞여있는 듯하다. 건물의 매스는 가운데로 집중되어있으며 처마로 덮여있는 테라스가 나타날 때까지 건물은 날개 방향으로 분산시킨다<그림 11>. 또한 테라스에 있는 나무는 건물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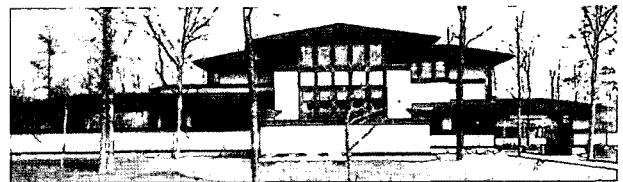


그림 10. 윌리츠(Willitts, 1902) 주택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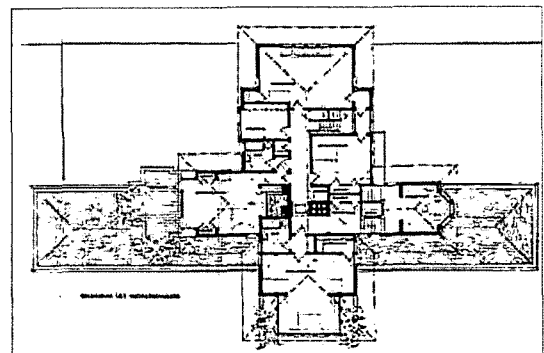


그림 11. 윌리츠 주택 평면

20) A.Perez-Gomez(1988),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MIT Press, p.62.

21) F. L. Wright(1997), Frank Lloyd Wright, A+U, 집문사 편집부(역), p.89.

18) 질 들뢰즈(1996), 베르그송주의, 김재인(역), 문학과 지성사, p.72.  
19) Wright, op. cit., p.23.

제공 가능케 하였다.

윌리츠 주거에서 건물의 요소와 주위의 요소들이 파편화, 단편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의하여 주거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거주자와 세계를 자연과 연계하여 융해하였다. 따라서 평면의 블록 형태는 내부공간을 한정하는 경계가 되지 않는다. 라이트는 인공 자연을 주거에 반영하여 건축과 자연을 잇는 역할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건축 평면과 전체 형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근대건축이 자연이라는 특수성을 부정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획일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라이트는 건축에 자연을 포함시키는 건축의 특수성과 자연과의 비자율성을 강조하고 해석하였다.

#### 4. 재료의 구축

라이트는 재료를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을 고집했다. 즉, 재료는 그 자체가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근대 건축가들은 그들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믿음에 입각하여 역사적 유형성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고자했다. 이들의 기능주의적 건축 기술을 뒷받침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서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듯 바뀌었다. 벽돌에 회반죽을 바르거나, 기계제작에 의한 듯한 외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된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근대건축이 공업적 형식의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재료의 획일적 사용, 대량생산된 재료 등 기계 문명이 스며든 시대 주택과 기계가 주거환경을 획일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라이트는 이런 근대건축이 추구하는 재료의 사용과 반해서, 벽돌은 벽돌로 목재는 목재와 같이 모든 것들이 재료 그 자체로 정직하게 보여지도록 했다. 인위적인 색조나 색채는 원래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는 천연재료에 외양적으로 치장적인 색채를 입히지 않았다.

게다가 주택이 대지에 순응하고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지역적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찾았다. 라이트가 강조하는 지역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근대건축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의 보편화, 기술의 대중화와 산업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공간이 주로 시각적인 것에 의존한다면, 장소성은 재료의 촉각(tactile)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기술과 기능을 중요시하였으나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건축이나 인간을 그것에 종속하지 않았다. 예술을 추구하는 목표는 항상 인간을 중심점에 놓게 하는 자유스런 형태의 창조이다.

퓨주택(Pew House, 1939)에서 주위에 있는 숲과 나무와 어울리기 위하여 라이트는 목재 발코니를 사용하였다 <그림 12>. 2층의 주택은 언덕위에 위치하여 호수가 보이며 아래 1층 부분은 오픈하여 등고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런 연속적인 선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지 주변에 많이 있는 삼나무(cypress)와 석회암(limestone)을 외부와 내부에 수평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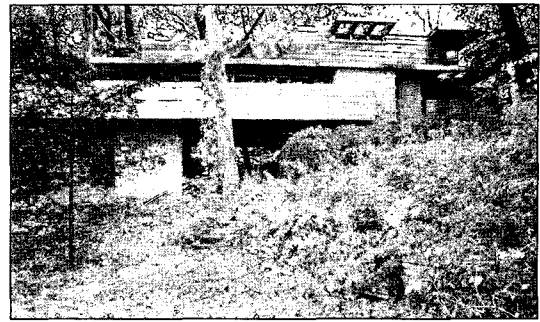


그림 12. 퓨주택(1939)

거실에서 재료의 수평적 구축은 직사각형의 거실 공간구조와 함께 시각적으로 외부의 삼나무 숲과 호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재료를 건물에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주위의 자연 세계와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삶의 한 과정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실체와 질서(우주/세계)와 함께 주위의 모든 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에 라이트는 관심을 두었다. 이는 라이트의 로비(Robbie)하우스와 같은 많은 주택들이 벽돌을 사용한 것과 다르게 고유의 재료를 선택하여 주변의 문맥과 시각적으로 인식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다. 즉, 근대건축이 추구한 기계적 이미지와 대비하여 연속적인 인간의 주제를 지지하고 산업주의를 거부한 것을 보여준다.

라이트는 낙수장에서 암으로 둘러싸인 대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레벨에 배치된 수평방향의 콘크리트 슬라브를 사용하였다 <그림 9>. 이런 고려는 라이트의 주택이 주변 자연과 물리적 재료적 유대를 갖도록 했다. 이점에서 주택은 대지에 깊은 결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성, 안전, 힘을 전하며, 이것들은 모두 거주하기 위한 인간 욕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다.

또한 거실의 난로는 자연석 위에 있으며,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암이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어 마감되었다 <그림 13>. 실내의 벽면에 동일한 재료의 사용과 연속성, 지역에 익숙한 재료의 사용은 라이트가 건축의 인간적 표현을 탐구하는 것에 관심을 둔 것이다. 인간에게 친밀성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으며 인간이 어떤 문화적 숙박이나 제도적 틀로부터 자유롭게 느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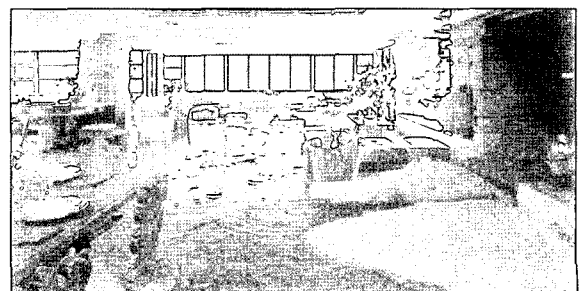


그림 13. 낙수장 거실 내부

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였다.

5. 자연환경과의 관계

라이트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의 통합적 요소로서 자연 기후에 대한 주택의 관계를 역설했다. 가능하다면, 그는 주택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많은 자연 열과 채광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따라서 거주자들은 자연과 많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용이했다. 바위 위에 서있는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워커(Walker, 1951) 주택에서 라이트는 자연환경을 적절히 구사하였다. 시각적으로 주택을 바다와 연결하고 채광과 환기를 허용하기 위해 작은 개구부를 두는 대신 전면창을 설치하였다<그림 14>.

워커주택은 바닷가 근처의 캘리포니아 몬터레이(Monterey)만에 위치하여 암반위에서 바다를 향해 있다. 돌로 된 테라스, 거실의 지붕은 캔틸레버로 내밀어져 시각적으로 오픈된 거실과 함께 주택은 바다를 출항 할 것 같은 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벽난로는 지붕과 거실을 배의 돛과 같이 지탱해주고 있다. 거실은 시각적으로 가장 중심적으로 모아져있으며 주위에 침실과 부엌이 위치해있다. 거실은 6각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거실은 따로 구성된 전면창이나 직접적인 바람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계단식형(박공단형, corbel step) 창으로 설치되었다<그림 15>. 따라서 외부의 바닷바람의 유입은 격어진 부분의 하부에서 실내로 공기가 들어오는 환기 시스템을 채택하였다<그림 16>.

시각적으로 바다를 향해 열린 조망은 촉각적으로 거주자에게 강한 바람을 실내에 들여오는 대신 미약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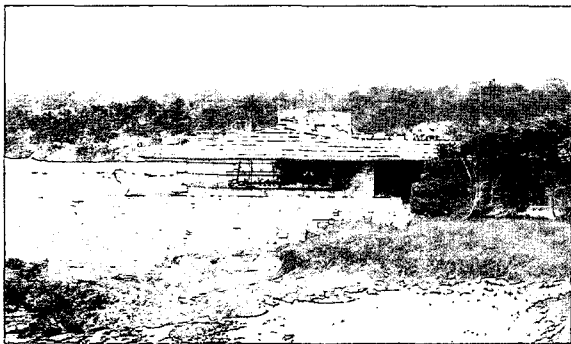


그림 14. 워커(Walker, 1951)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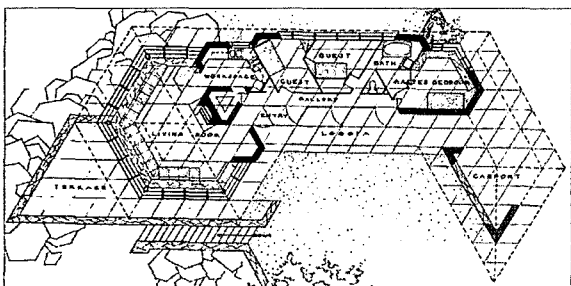


그림 15. 워커주택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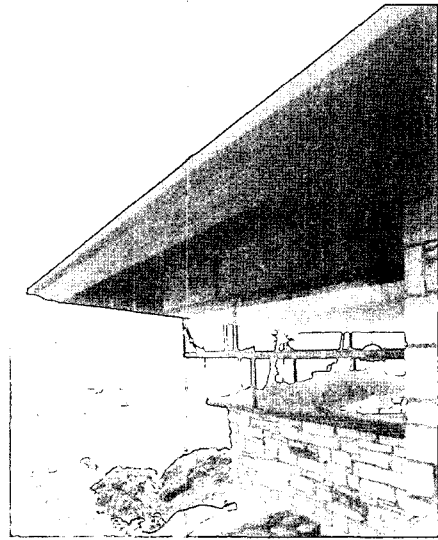


그림 16. 워커주택 거실 유리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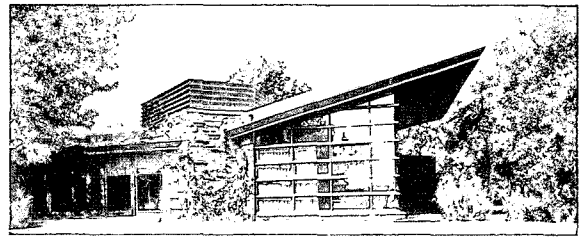


그림 17. 블레어(Blair, 1952) 주택

람을 느끼게 하여 시각과 촉각이 적절히 조화되게 하였다. 즉, 두 가지의 감각을 동시에 분리하여 느끼고자 했다. 라이트는 각각의 요소들을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공감각을 적용하였다. 전체 우주와 세계 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종속적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시각, 청각, 촉각등 감각적 요소들의 분리는 거주자가 거실에서 바다를 조망하며 청각적 시각 혹은 시각적 청각과 같은 상호 감각적 경험(intersensory experience)을 가능케 하였다.

블레어(Blair, 1952) 주거에서 라이트는 넓은 초원의 평지와 대응하고 채광을 위해 거실의 천장을 평면의 중심축에서 45도 각도로 들어 올렸다<그림 17>. 거실의 들어올린 창은 멀리언(mullion)에 의해 지탱되고, 수평의 창의 형태는 주택을 더욱 활기를 불어 넣어주었다. 라이트는 종래의 캔틸레버가 건물에 덧달린 것이 아닌 지붕을 캔틸레버로 공중에 내밀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대담한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가볍게 내민 처마는 전체 평면의 T자 형태를 강조하며 미국 와이오밍(Wyoming) 지역의 넓은 초원의 지평선으로 뻗어나갔다. 내민 처마는 주변에 나무가 없는 평지에서 적절히 그늘을 만들어 주고 평평한 지붕 슬라브보다 많은 채광과 공간의 쾌적감을 거주자에게 준다.



라이트가 사용한 유리벽은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조절하고 인간의 삶과 날씨의 세계를 연결하고 중재하는 침투성있는 피막으로 작용한다. 르네상스 시대에 원근법의 시점은 보는 사람의 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눈을 시각적 세계의 중심에 놓았다. 시각적 세계는 우주가 신을 위하여 형성되었다고 믿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을 위하여 배치하고 구성하여 시각적 상호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트는 세계를 상호 관계에 의하여 구축된다고 믿어 건축과 자연에서 느끼는 경험과 실체는 전체 안에 통합될 때 진정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푸주택이나 블레어 주택과 같이 내부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요소들을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상자의 일부로 보지 않고 전면 유리벽으로 구성하여 인간이 더 이상 내부에 갇혀있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했다. 유리벽은 과거와 같이 바탕(ground)이 아닌 하나의 형상(figure)으로 보여진다. 거주자는 내부공간에 있으면서 외부공간에 있는 것 같은 체험을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신과 세계는 단일한 존재인 그 속에 있음(dasein)에 함께 속한다. 자신과 세계는 주체와 객체처럼 두 실체물들이 아니다..... 자신과 세계는 세계-내-존재(being-in-the-world)라는 단일 구조체에 속한 그 속에 있음 그 자체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결정된다<sup>22)</sup>.

하이데거의 말같이 인간과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 라이트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라이트는 닫혀지고 고립된 내부 세

계(공간)를 활기 있고 생기 넘치는 외부세계(공간)에 방출하여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게 하였다.

#### IV. 결 론

리얼리티는 삶과 연관해서 관습과 상징, 은유와 미학, 객관적 실재와 이미지, 합법성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으며, 건축은 적극적으로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라이트는 이러한 리얼리티의 개념에 자연 상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주택에 반영하였다<표 1>.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라이트의 주택은 리얼리티와 자연과 연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리얼리티와 자연에 있어서 라이트의 주택은 인간, 건물, 자연을 통합한 구체적 공간의 재현이다. 2장에서 논의된 리얼리티는 건축으로 재현될 때 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라이트는 자연 상징을 통해서 삶의 요소들이 주택의 평면, 입면, 형태에 반영됨으로써 공간들은 연관을 맺고 리얼리티의 은유와 상징, 그리고 변화와 생성이 사실적으로 드러나도록 했다. 이는 라이트의 건축이 유기적으로 요소들의 집합인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상상력의 건축이라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인간과 자연의 역동적인 상호 수용을 향한 모색이 내외부공간과 형태가 외부 자연세계의 반영으로 보거나 자연을 인간이 지각적으로 투사하여 봄으로써, 리얼리티와 상상력 두 가지 모두를 라이트의 주택에서 경험할 수 있다.

표 1. 자연상징과 라이트의 주택 분석

| 리얼리티의 정의     | 관습과 상징        | 은유와 미학  | 객관적 실재와 이미지   | 합법성   |  |
|--------------|---------------|---|---|---|--|
| 라이트의 자연상징    | 지속성           | 건축형태  | 재료의 재현  | 자연환경  |  |
| 라이트의 자연상징 해석 | 낙수장 (193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사각형 테라스와 굴뚝 (거실자연석의 원형)</li> <li>수직, 수평의 비례와 조화 (주변 자연의 은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암을 고려한 수평방향의 콘크리트 슬라브(물리적 재료와 주변자연과 유대)</li> <li>거실에 주변의 사암 노출</li> <li>실내외에 동일한 재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각도의 시각적 노출</li> <li>주변 물소리에 대한 촉각적 감지</li> </ul>                                       |  |
|              | 윌리츠 주택 (19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자연, 인간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li> <li>가정의 상징인 벽난로를 중심에 배치하여 주택이 대지에 안정적인 이미지 상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자연을 주거에 반영</li> <li>건물 매스가 날개방향으로 자연으로 분산배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재의 지붕과 주변 나무와 유대</li> <li>건물과 나무를 하나로 통합</li> <li>벽체는 색채가 섞인 모래 마감(자연적 질감의 재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라스에 나무를 두어 촉각을 감지</li> </ul>   |
|              | 푸 주택 (19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속적인 대지의 등고선을 고려한 자연의 상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요소와 자연요소의 융해</li> <li>주변 재료를 건물 내외부에 수평적으로 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위의 나무와 조화위해 나무 발코니 사용</li> <li>주변의 삼나무와 석회암을 건물에 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층주택과 호수를 시각적으로 연결</li> <li>1층부분 오픈하여 바람이 관통(시각적으로 등고선 노출)</li> </ul> |
|              | 위커 주택 (19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와 건물을 연결하며 배를 상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벽난로: 배의 돛을 은유 (지붕과 거실을 지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돌을 이용한 테라스</li> <li>거실 전면 유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닷바람의 촉각방지</li> <li>시각과 촉각의 분리</li> </ul>                             |
|              | 블레어 주택 (195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넓은 초원의 평지에 순응하는 주택 상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원과 연결하는 수평창</li> <li>상승하는 캔틸레버 (가볍고 대담한 외관 은유)</li> <li>평면 T형태: 지평선으로 펼쳐짐 은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 유리벽: 내외부의 관계 조절, 삶과 날씨의 세계를 중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광을 위해 거실의 천장을 45도 올림</li> </ul>                                      |

22) 이동언(1999), 삶의 건축과 패러다임건축, 시공문화사, p.38.

두 번째로 이런 점에서 라이트의 주택은 건물과 자연과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단초로서 창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트는 창조성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을 기존의 의미와 방식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주변 사물의 존재형성의 역사를 묻고 깨달으며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 사물의 이치와 질서(지속성, 자연환경, 재료의 재현)를 알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즉, 라이트는 과거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그의 주거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의미의 전달은 전통적인 상징이 건축바깥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객관적인 건축프로그램인 자연 상징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라이트 주택의 창조성은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고려하여 건축에 풍부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 번째는 라이트는 삶은 건물을 거처로 전개되기 때문에 건물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삶의 요소들이 공간화 하는 거점으로 보았다. 진정한 자연과 통합하는 주택이 되기 위해서 삶의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간직하도록 주택을 건설하는 활동으로 보아 산, 바다, 지형, 재료의 시각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폭포, 바다의 파도, 나무 가지의 흔들림, 바람의 강약, 냄새 등의 시각, 청각, 촉각의 감각이 느낄 수 있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건축에 반영하였다. 이는 라이트의 주택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요소들이 관계를 중시하여 전체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 외에 역동적이고 생성하는 의미의 시적인 풍요로움을 보여준다.

물론 라이트의 주택은 이외에도 유기적 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요소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은 본고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자연과 연관하여 리얼리티가 건축으로 어떻게 반영되었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의 이해와 접근방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이외의 요소와 연관하여 리얼리티가 건축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은 본 논문이 갖는 한계로서 다른 시각의 접근과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Arnheim, R.(1977), *The Dynamics of Architectural 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Berger, P.L. et.al.(1977),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Garden City, Doubleday.
3. Bergson, H.(1960), *Time and Free Will: An Essay on the Immediate Data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per & Row.
4. Cassirer, E.(1944), *An Essay on M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5. Dubos, R.(1965), *Man Adapt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6. Duncan, H.(1965), *Culture and Democracy*, New York, The Bedminister Press.
7. Duncan, H.(1968), *Symbols in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8. Edelman, M.(1978), *Space and Social Order*, in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no.514-78, p.1-14.
9. Forsee, A.(1998),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태림문화사.
10. Gebhard, D.(1997), *The California Architecture of Frank Lloyd Wright*,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11. Gombrich, E.H.(1963), *Meditation on a Hobby House*, Lonon, Phaidon.
12. Harries, K.(1983), *Thoughts of a Non-Arbitrary Architecture*, in *Perspecta*, vol.20, 1983, p.10-20.
13. Heidegger, M.(2001), *Poetry, Language, Thought*, New York, Harper.
14. Heinz, T.(2000), *The Vision of Frank Lloyd Wright*, Edison, Chartwell Books.
15. Lynch, K.(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Cambridge: MIT Press.
16. Mead, G.(1925), *The Nature of Aesthetic Experience*, i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vol.36, p.384-92.
17. McCarter, R.(1991), *Frank Lloyd Wright*,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8. Perez-Gomez, A.(1988),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Cambridge, MIT Press.
19. Rapport, A.(1970), *Symbolism and Environmental Desig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Symbolology*, vol.1, no.3, p.2-12.
20. Rapport, A.(1977), *Human Aspects of Urban Form*, Oxford, Pergamon Press.
21. Smith, K.(1998), *Frank Lloyd Wright*, New York, Abbeville Press.
22. Storrer, W.A.(1993), *The Frank Lloyd Wright Compa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3. Twombly, R.C.(1979), *Frank Lloyd Wright: His Life and His Architecture*, New York, Wiley.
24. Venturi, R.(1998),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임창복(역), 기문당.
25. Wright, F.L.(1954), *The Natural House*, New York, Macmillan.
26. Wright, F.L.(1997), *Frank Lloyd Wright*, A+U, 집문사 편집부(역).
27. 보이시치 레스니코프스키(1995),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건축, 박순관, 이기민(역), 도서출판 국제.
28. 이동연(1999), 삶의 건축과 패러다임건축, 시공문화사.
29. 질 들뢰즈(1996), 베르그송 주의, 김재인(역), 문학과 지성사.

(接受: 2004. 3. 4)